

박지훈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박지훈 작가를 알게 된 것은 15년전쯤 되었나 보다. 나의 지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작가라고 소개해준 적이 있었고 이후 몇몇 전시를 통하여 그의 작업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남서울예술인마을'이라는 작가 스튜디오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작업을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겼다. 그의 작업실에는 금속 재료로 가득한데 이 재료들은 항상 벽면 어딘가에 정돈되어 세워져 있거나 쌓여있다. 도구를 정리하기 위한 수납 시스템 또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속을 자르거나 잇거나 하는 장치 또한 직접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장치들이 작은 작업실안에 들어차 있었지만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작가의 작업 동선에 효율적인 나름의 체계가 있는 공간이었다.

박지훈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다루어오고 있지만 어느덧 지금은 금속을 주재료로 삼아오고 있는 조각가다. 이번에 진행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 <뜨거운 공기, 차가운 악기들>에서의 주된 재료이기도 하다. 금속은 그 어느 것 못지 않게 자르고 깎고 다듬어내는 과정에서 힘과 시간과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재료이다. 길다랗거나 납작한 모양의 금속의 조합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구현되는데, 작가가 직접 자르고 잇고 한다. 용접을 통하여 그리고 나사를 매개로 이어지기도 하고 볼 또는 그라인더 등을 통하여 잘리기도 한다. 금속의 표면 또한 작가의 손으로 특정한 힘이 가해진다. 작품 <수면장애>의 경우 전기 용접으로 인하여 철과 철 사이의 이음새에는 용접봉이 녹아서 생긴 요철이 생겨 있는데, 작가는 이를 직접 사포로 밀어서 그 요철을 없앤다. 사람의 힘으로 몇 천 번을 밀어대야지만 그 자국이 쓸려서 평면이 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최첨단의 시대에 손으로 갈아내고 깎고 붙이는 류의 작업과정을 작가가 직접 시간을 들여 하고 있는 풍경은 생경한 풍경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 반가운 모습이기도 하다. 전시된 작품을 보면 이들은 정교하지만 수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독특하고 오르가닉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 무겁고 딱딱하고 견고한 재료를 손으로 직접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답게 가공할 수 있는 작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신선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작가는 20여년 전 처음 이 재료를 다루면서 만들어낸 작업들은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조약하고 어설플 미완의 것들이었다고 회상하며 여러 해를 같은 재료를 다루다 보니 스스로 습득하게 된 기술과 정교함이 더해져 왔다고 말한다. 그러고보니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매번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가 본인에게 매해 작업은 더 다를 수 밖에 없는듯하다. 작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섬세한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을 일이다.

박지훈 작가의 작품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자신이 겪은 우울증에 대한 경험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정신의 불안정한 상태에 영향을 받는 자신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균형감을 찾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작품 제작 과정은 치유적

행위로의 전환 방식으로 드러난다. 즉 전시 공간에는 의미 없는 반복들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뜨거운 철판 위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증발하고 있다. 관을 통하여 빠져나온 물이 신체와 접촉하면서 오염되지만 그 물들은 정화과정을 거쳐 다시 관을 통하여 떨어지는 반복적 장치도 있다.(〈졸린 눈을 한 치과 의사를 향한 끊임없이 않는 정욕〉, 2013) 해골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의 무상함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나른한 오후〉, 2017) 망치의 해드와 손잡이는 영원히 기능하지 못하는 동시에 영원히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K씨의 케이스〉, 2018) 뺨뚫뺨하게 세워진 유리잔 속의 액체는 그 기울기와 상관없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다.(〈엠티〉, 2018) 두개의 기다란 수직 막대기는 천천히 돌아가는 수평 막대기에 의해 가끔 흐트러지지만 이내 곧은 선을 유지한다.(〈왈츠-조금 느리게〉, 2018) 이 모든 장치들은 한쪽 벽면에서 SOS와 HELP를 반복적으로 발산하는 모스부호로 상징화한 작가의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악보(빠르게, 반복적으로)〉, 2018)